

급한 돈 빌리는 생계형 대출 급증 소액신용 잔액 1.6조 사상 최대치

79개 저축은행 전년대비 22% ↑
총 대출잔액은 0.8% 증가 그쳐
소액대출 연체 721억, 2년래 최대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1조 6000억원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취약계층의 자금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급전 수요가 소액신용대출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 총 소액신용대출액은 1조59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조3049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대출잔액은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6월 말 94조9035억원에서 올해 6월 말 95조695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전체 대출 규모가 사실상 정체된 반면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2024년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6월 말 1조3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12월 말 1조4000억원을 돌파하더니 올해 6월 말에는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

분기별로 살펴보면 소액신용대출잔액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소액신용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약 760억원에서 4분기 814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는 496억원으로 둔화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808억원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이하의 자금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생계형 대출이다. 주로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과 중·저신용자들이 이용한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이며 평균 금리는 15~16% 수준이다.

소액신용대출은 보통 생활비 등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된다. 대출잔액 증가는 고금리·고물가로 취약계층이 수백만원의 생활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반영된 신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서는 소액신용대출 연체액도

상승하고 있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6월 말 약 708억6400만원에서 9월 말 688억8900만원, 12월 말 671억7200만원으로 감소하더니 올해 3월 713억800만원, 6월 721억2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체액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급전 마련 수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자금 수요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묶이고 타 업권의 카드론·보험약판대출까지 조여지면서, 급전 수요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로 이동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안채선 기자

wotis4187@metroseoul.co.kr



metro



서울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투시도.

/현대건설

“1000만원으로 송파 오피스텔 계약 하세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 분양
현대건설, 복정역 도보권 1393실 규모

서울 송파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 1차 계약금 정액제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를 분양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로 구성된다. 복정역 도보권에 들어서며, 총 1393실 규모다. 입주는 2031년 1월 예정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지만 1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적용했고, 1차 중도금 일정도 약 1년 후인 2027년 10월 말로 확정해 대출이자 부담을 덜었다. 전용 34~36㎡ 소형 타입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지가 자리한 곳은 복정역 스마트시티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다. 송파비즈클러스터피에프브이가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대지면적 약 21만9000㎡, 연면

적 약 166만㎡ 규모로 총사업비만 13조원 대에 이른다.

복합용지 3블록에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가 들어서고, 2블록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과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기술 연구를 담당할 HMG퓨처콤플렉스가 조성된다. 지하 1층에는 현대백화점이 위탁 운영하는 쇼핑몰도 조성될 계획이다.

도보권에 위치한 복정역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다.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남유역(8호선)을 잇는 위례선 트램이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시범 운행 중이다. 여기에 위례신사선(예정)과 위례과천선(추진)까지 더해지면 교통 여건은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이 개통되면 강남업무지구(GBD)까지 이동이 더욱 편리해진다.

다양한 특화 설계로 세대 내에는 2.42m 높이의 우물전장을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냉장고, 인덕션을 기본 제공한다. 세대별 창고를 별도로 제공해 계절 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 공간은 세대 당 1.19대 수준으로 넉넉하게 계획됐다.

건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218(벤츠 자곡전시장 건너편)에 위치한다.

/안상미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124’ 투시도.

/현대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조감도.

/롯데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 현장.

/안상미 기자

갭투자·유주택자도 ‘OK’… 강남 분양대전

디에이치 반포 124

일반 1832세대, 시세차익 기대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총 835세대 규모, 내년 2월 입주

디에이치 신반포 에스테라

내달 6일 입찰, 트리플 역세권

연말 분양시장은 강남 대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지부터 세금 부담이 적은 소형과 실거주가 필요없는 곳까지 선택지도 다양하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연내 서울 서초구에서만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 124’를 비롯해 서초동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 잠원동 ‘디에이치 신반포 에스테라’ 등 3개 단지가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먼저 출격하는 곳은 잠원동 65-33일원에 조성되는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다. 오는 30일 입찰 공고를 내고, 11월 6일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디에이치 신반포에스테라는 일반분양 물량이 28세대라 청약홈이 아닌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지는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으로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개 동, 총 160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84㎡ 28세대가 나온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함께 7호선 반포역, 3·7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반경 500m 이내에 반원초와 경원중이 위치하며, 청담고가 잠원동으로 이전 개교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뉴코아아울렛, 서울고속버스터미널, JW 메리어트호텔 등이 가깝고, 서울성모병원도 주변에 위치한다.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적용된다.

서초구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30세대에 미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반대로 그 덕분에 다른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물론 거주요건도 없으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유주택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반포 124는 다음달 27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2월 7일 특별공급을 청약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50개동, 총 5007세대 규모다. 9호선 구반포역과바로

앞에 위치했으며, 4호선 동작역과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모두 인접했다. 반포초와 반포중을 이변에 단지와 같이 새로 지어졌고, 서래초,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이 반경 1km 이내 위치했다. 서울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도 이용이 편리하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1832세대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대단지인 만큼 1주택자도 가능한 추첨률량도 풀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당첨될 경우 시세 차익은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퀴 세법개정안을 적용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소형 아파트도 대거 중이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서초동 1448-1 일원에 들어서는 서초 롯데캐슬 아트팰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835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46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5~46㎡ 소형이다.

단지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으로 공급되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청약 절차도 일반 아파트와 같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이미 공사를 마쳐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금융, 누적순익 5.8조… 전년대비 13% ↑

작년 연간과 비슷… 3분기 순익 1.9조
이자이익 기반 수수료이익 큰폭 증가

KB금융그룹의 올해 들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 기반이 안정적으로 받침이 된 가운데 증권 등 수수료 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29일 KB금융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조7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1% 늘면서 작년 연간 순이익 5조83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3분기 순이익은 1조9075억원이다.

KB금융 재무담당 나상록 전무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KB금융은 은행·비은행 부문의 균형 잡힌 이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내실경영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수료이익이 그룹의 수익 기반 확대와 견조한 이익 성장세를 견인했다.

3분기 누적 순수수료이익은 증권 브로커리지와 은행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수료가 큰 폭 확대되고, 카드, 리스 관련 수수료 성장세가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38.5% 급증했다. 다만 3분기 순수수료이익은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4개 분기 연속 1조원을 웃돌았다.

3분기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1.92%, 은행 NIM은 1.72%로 전분기보다 각각 2bp씩 축소됐다.

자산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9월 말 기준 그룹의 고정여신(NPL)비율은 0.69%며,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0%, 16.02%다.

그룹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3분기 누적 기준 0.93%, 13.89%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 자본효율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851조5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684조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조57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509억원이다.

/안상미 기자